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 플러스
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11. 27.(금) 배포시점 배포 2026. 11. 27.(금) 15:00

신속하고 정확한 국민안전 긴급구조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

-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향상 민관협의체 운영…수직위치정보 도입 등 논의 -

재해·재난, 범죄 등 급박한 위험에서 국민의 생명·신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위치정보 품질 향상 방안을 논의하는 민관협의체가 구성됐다.
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(위원장 김종철)는 27일 서울에서 수직위치정보 도입 및 위치정보법 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'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향상 협의체' 첫 회의를 개최했다.

협의체에는 긴급구조기관(소방청, 해양경찰청, 경찰청), 한국인터넷진흥원, 한국전자통신연구원,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, 이동통신사(SKT, KT, LG U+), 이동통신단말기 제조사(삼성전자, 애플) 등 12개 기관 및 사업자 등이 참여한다.

협의체는 긴급구조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다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위치정보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 및 사업자 등의 기술적 협력과 참여가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범했다.

방미통위는 글로벌 단말기 제조사인 애플과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개선을 협의해 올해 4월 기존 긴급전화 종료 후 5분간 제공하던 위치정보를 30분으로 확대했고, 지난 9월에는 iOS 27 업데이트를 통해 긴급구조 위치정보 응답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.

첫 회의에서는 ▲수직위치정보 도입 ▲복합측위 위치정보 표준화 ▲긴급구조 위치정보 요청 요건 일원화 ▲실종성인 위치 조회를 위한 위치정보법 개정(안) ▲애플 복합측위(HELO) 응답시간 단축에 대한 품질 측정 계획 등을 논의했다.

방미통위는 앞으로도 민관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수직위치정보 도입 등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향상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
이날 회의를 주관한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“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하여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을 높이고,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·기술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”고 밝혔다.

붙임. ‘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향상 협의체’ 구성

담당 부서	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위치정보정책팀	책임자	팀 장	김지권	(02-2110-1290)
		담당자	사무관	성석제	(02-2110-1622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모두의 미디어 주권, 함께하는 미디어 기본사회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**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향상 협의체 구성**

구 분		소 속
정부 기관		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
		소방청
		해양경찰청
		경찰청
공공 및 연구 기관		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
		한국전자통신연구원(ETRI)
		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(TTA)
민간 사업자	이동통신사업자	SK텔레콤㈜
		㈜KT
		㈜LG유플러스
	이동통신단말기 제조사	삼성전자㈜
		애플코리아(유)